

한겨레

사회 의료·건강

[단독] 수도권도 공보의 부족..."혼자 40~80km 순회진료"

허윤희, 송상호 기자

수정 2026-09-22 01:17

 선호하는 매체에 추가

전국 보건지소 1곳 당 '0.49명'
의정갈등 뒤 지원자 급감 겹쳐
3년 반 새 41%↓...의료공백↑



게티이미지뱅크

귓속 이명 "귀울림" 위험 신호다?! 방치했다간 큰일, "이렇게"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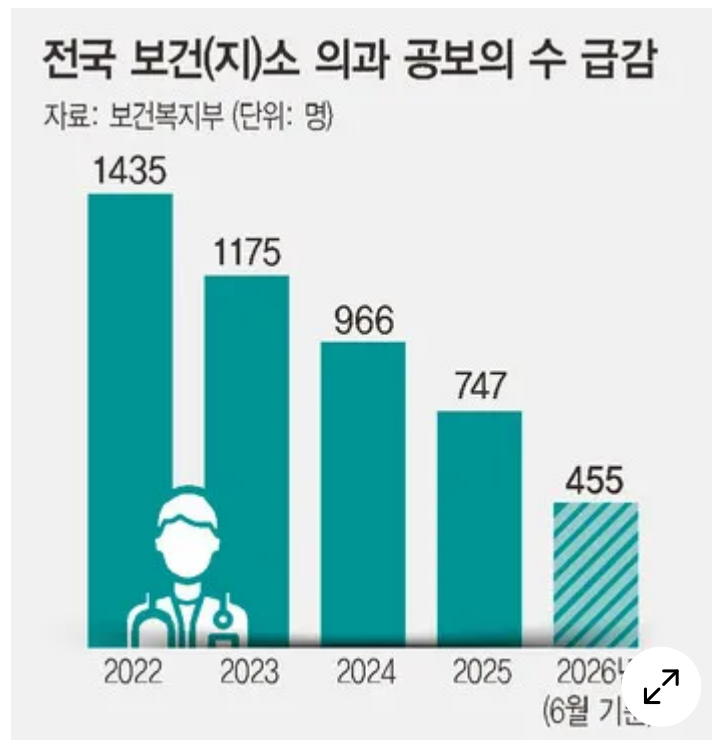
AD

“혼자 보건지소 3곳을 돌아가면서 진료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가다 보니, 하루에 환자를 다 봐야 합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 힘들어요.”

경기 지역에서 일하는 공중보건 의사(공보의) 이종민(가명)씨는 “보건지소당 공보의가 1명씩 있을 땐 1곳만 맡았다면 지금은 혼자 왕복 40~80km를 이동하면서 보건지소 3곳을 순회진료를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도 일주일에 한두번 공보의가 방문하는 요일에만 진료를 보러 보건지소에 가야 한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2년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진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뿐만 아니라 경기 등 수도권 농촌 지역도 공보의가 급감하고 있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2022년 337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982명으로 1391명(41.2%) 감소했다. 특히 공보의 제도의 중심 축인 ‘의과 공보의’는 같은 기간 1720명에서 587명으로 65.9%(1133명)나 급감했다.



공공의료 최전선인 전국 보건(지)소 1곳당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평균 1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국 보건(지)소의 경우 2022년 1336곳에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1435명으로 1곳당 1.07명이 일

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932곳에 455명이 배치되는 등 1곳당 0.49명으로 줄었다. 새로 진입하는 의과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2년 511명이었지만, 지난해 24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93명에 그쳤다.

수도권도 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 의료 취약지인 경기 파주·포천 등 보건(지)소당 의과 공보의가 2022년 0.98명(112곳·110명)에서 올해 6월 0.22명(58곳·13명)까지 뚝 떨어졌다. 공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3년간 농어촌 보건(지)소 등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다. 의과·치과·한의학 공보의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의료인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만성적인 공보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과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 회장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었지만 군의관·공보의는 제도 시행 뒤 단 한차례의 조정 없이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공보의 복무 경험이 경력 단절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료 분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고심이 크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보건지소(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공보의가 없는 곳엔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을 파견하고 있다. 순회 진료와 비대면 진료 등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 갈등 여파로 공보의 수가 급감한 탓에 보건지소마다 내과 진료, 약 처방 등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